

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『서울시 주얼리산업의 실태와 과제』

목적

- 해당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거쳐 서울의 민생현장 의견을 수렴하고,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

일시 및 장소

- 일시: 2018년 7월 20일 15시
- 장소: 종로타운 3층 서울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실

발표주제 및 토론자

- 박희율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, ‘서울시 주얼리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’
- 최용훈 서울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센터장, ‘서울시 주얼리산업의 현안 및 이슈’
-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회장, 임지건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, 신창호 서울시립대 교수,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등



[부록 그림 1] 주얼리산업 민생경제 포럼

발표 1 : 서울시 주얼리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

○ 주얼리산업의 사업체 규모

- 2016년 통계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얼리산업 사업체 수는 15,401개로 전년 대비 1.6% 상승
- 주얼리산업 중 업태별 규모는 소매업(11,368개 전년 대비 2.3% 증가), 도매업(2,333개, 전년 대비 0.3% 감소), 제조업(1,700개, 전년 대비 0.1% 증가) 순
-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체 수 추이를 보면 도매업과 제조업은 증가하고, 소매업은 감소
- 또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를 보면, 1~4명 규모의 소규모 업체는 감소하였지만 5~9명 및 10명 이상 업체는 증가

○ 주얼리산업의 종사자 규모

- 2016년 전국 주얼리산업의 종사자 수는 35,250명으로 전년 대비 2.6% 증가
- 종사자 수는 소매업(20,704명), 제조업(8,000명), 도매업(6,546명) 등의 순이고,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제조업이 7.6%로 가장 높고, 그다음은 소매업(2.1%), 도매업(-1.5%) 등의 순
-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종사자 수 추이를 보면, 제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도매업도 증가하였지만, 소매업은 감소

○ 주얼리산업의 서울 및 종로 집적률

- 2016년 전국의 주얼리산업 사업체(15,401개) 중 5,773개가 서울에 입지(전국 대비 서울의 집적률 37.5%)하고, 특히 종로에만 2,898개가 입지(전국 대비 종로 집적률은 18.8%)
- 산업별로는 도매업체의 82.2%가 서울에, 65.7%가 종로에 집적되어 있고, 제조업체도 62.4%가 서울에, 43.6%가 종로에 집적되어 있는 반면, 소매업체는 서울에 24.6%, 종로에 5.5% 집적

○ 주얼리 소매상의 제품 구입 경로

- 전국 주얼리 소매점들의 비율별 구입 경로를 보면, ‘자체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종로 이외 지역에 위치한 제조공장(도매)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한다’는 비율이 56.4%이고, ‘종로지역 제조(도매)를 통하여 제품을 구입한다’는 비율이 43.6%

○ 주얼리 제조 산업의 현황

- 주얼리산업 중 제조업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소공인 형태 공장들로 구성
- 거래하는 도매업체나 주문하는 소매상 요구에 따라 흥정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유지
- 오랫동안 상승하지 못한 공임 때문에 다른 비정상적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소비자의 신뢰 약화
- 열악한 환경과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등이 젊은 인재들의 제조업 진출을 막고 있는 실정

발표 2 : 서울시 주얼리산업의 주요 현안 및 이슈

○ 귀금속 제품 함량 관련 이슈

-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에 대한 공지에 따라 귀금속 KS표준 순도를 준수하자는 것이 주요 이슈 중 하나
- 원자재(순금)는 반드시 999.9로 생산하고, 거래금(순금)도 999.9로 유통하고 제조자 상호 및 약호를 각인

○ 무작위 샘플 분석 결과

- 무작위 샘플 분석을 통한 함량분석 결과, 함량이 적절한 비율은 18%에 불과하고, 함량이 과다(46%)하거나 함량 미달(36%)
- 함량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‘결제금 사용’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합금 제조 시 알로이 배합 오류’, ‘공정과정 오류’ 등의 순으로 조사

- 함량이 과다하게 된 이유도 ‘결제금 사용’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고, 그다음은 ‘합금 제조 시 알로이 배합 오류’, ‘기타’ 등의 순으로 조사
- ‘결제금’에 따른 주얼리산업 문제점
 - 음성적으로 금이 유통되면서 정부의 주얼리산업 육성 의지가 낮아짐
 - 세무조사의 위협으로 업체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지님
 - 근로자 4대보험 등 기본 근로기준법 준수에 어려움 발생
 - 금 함량이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함량 문제 발생
- 함량 문제에 따른 손실
 - 결제대금 비용 손실과 더불어 함량을 믿지 못해 분석할 때 분석 비용이 발생하고 재가공도 어려움
 - 또한 함량이 과다하다면 주얼리 업체는 2차 손해가 발생하고, 함량이 부족하게 되면 업계 신뢰도 하락
- 개선 방안
 - 도·소매 업장과 공장 간 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없애고 현금 거래만 사용

토론 정리 및 전문가 코멘트

- 주얼리 관련 60여 개 협회가 있었는데 회의를 통해 9월 이후 1개 협회로 통합
- 주얼리 업계는 가족, 선후배 등 지인들 위주로 운영이 되었지만, 이런 구조를 후배나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
- 또한 주얼리산업은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그 안에 함량단체가 존재하여 양쪽에 관여하는 불합리함 존재
- 협회 통합으로 각종 문제를 정리하여 차후 업계에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

- 주얼리의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는 금 등은 모든 관세가 0%인데,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관세가 25%에 달해 불공정(FTA 협상의 불합리성)
- 주얼리 관련 2,700여 개 공장이 있는데 이들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면 현지에서도 팔 수 있고, 한국으로 들여와서 팔아도 관세가 없기 때문에 이익
- 현재 상황에서 경쟁을 하려면 디자인밖에 없는데, 한국은 일본 등보다 디자인이나 품질 모두 우수
- 서울시가 서울시 5대 산업에 귀금속을 포함하고, 3년 전에 115억 원을 들여 앵커시설 구축
- 다만 이를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남았는데,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도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필요
-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금에 부가세 10%를 부과
- 외국에서는 금을 화폐라고 하는데, 돈에 부가세를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
- 금이 왔다 갔다 하면 부가세가 계속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불합리
- 은행이 나서건, 기관이 나서건 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공식적인 기관 필요
- 정부 기관은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서가 발행됨
- 이런 기관과 시설을 만들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 필요
- 또한 주얼리 업계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
- 디자인과 품질이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위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공임비가 너무 낮아 직원 간 노동조합 설립 얘기가 나오는 중
- 주얼리는 좋은 기술력, 우수한 디자인과 더불어 제조업도 건설하여 잠재력을 보유
-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내수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수출에 더 주력할 필요
- 현재 업체들이 너무 영세한데 연합회나 조합, 정부, 소공인지원센터 등 단체들과 협력해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

부 록

- 부가세 10% 때문에 현금이 아닌 금 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음성적 부분의 개선 필요
- 부가세 문제 등을 해결하고, 업계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주얼리 업계에서도 대기업 브랜드가 하나 정도 나와야 함



[부록 그림 2] 주얼리산업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